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요인

마 상 진*

Key words: 농업인(farmer), 교육·훈련(education & training), 참여(participation)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rmers'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to identify the related variabl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on 773 farmers. Survey results indicated farmers' education and training frequencies were a little polarized; old farmers'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were more uncommon than the younger; high-educated farmers participated more frequently than the low-educated; farmers who produce livestock, fruits, flowers, and vegetables took part more often than farmers who produce grains; farmers who began their farm without farmer parents background were more involved than succeeding farmers; farmers with low farming career were more active participators than farmers with high farming career; high-farming level farmers who were excellent in farming scale and management and production skills compared with average farmers attended more frequently than the mid and low; farmers joining in production-related organizations had more education and training experiences.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the most explainable variables to farmers' education and training participation was farmers' age. In addition, farming level, farmer organization activity, kind of commodity, and farming parents background explained the remaining variances of farmers'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 | | |
|-----------|------------|
| 1. 서론 | 4. 연구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방법 | |

1. 서론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농산물 소비구조 변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 국내외적인 변화로 인해, 우리 농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성을 갖춘 농업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에 있어 전문성 있는 농업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농업인들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농림부는 매년 산하 기관 및 20여 개 민간단체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160여 개 이상의 농촌진흥기관은 중앙 단위 및 지역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쓰이는 정부 부문의 예산은 15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밖에 농협,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농업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훈련 인원을 연간으로 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농림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47,000여 명, 농촌진흥기관을 통해서 약 120여만 명 정도이다(마상진 등 2005). 공공부문을 통해 제공되는 농업인 교육·훈련만을 봐도 산술적으로는 대다수 농업인들이 매년 1회 이상씩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과잉 투자, 중복 투자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농업인 교육·훈련 투자 자체의 효과성 문제를 제기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제 농업인들이 얼마나 교육·훈련을 받고 있느냐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한 과잉, 중복 투자, 효과성 등을 논하기는 힘들다. 그 전에 정

말로 효과적으로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어떤 농업인들이 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수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농정과 그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들이 교육·훈련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인들의 어떠한 개인 특성과 영농 관련 특성이 교육·훈련 참여와 관계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농업인의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 정도의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농업인의 영농 관련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 정도의 차이를 구명한다.

셋째,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농업인 특성을 구명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현재 1차 생산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축산물의 가공 관련 산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예비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학교 농업교육기관(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전문대학, 농업계 4년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귀농을 위해 사회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농업인 교육·훈련’이라 함은 ‘농업인의 능력 개발을 위해 특정 기관이 교육·훈련 목표 설정, 교육·훈련 내용 선정과 개발, 교수학습, 교육·훈련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過程)을 통해 제공하는 형식화된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단기 훈련 코스(training course), 세미나, 견학(field-trip)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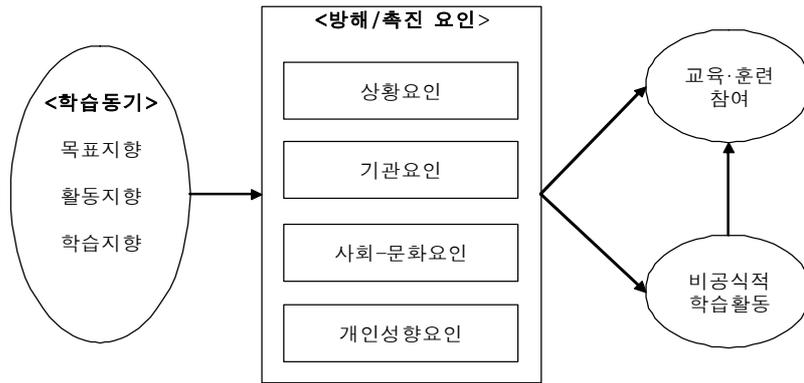
2. 이론적 배경

농업인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다. 현실적인 필요나 이익,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는 욕구(goal-oriented)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학습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참여한다는 행위나 활동 그 자체에서 의미와 만족을 구하는 경우(activity-oriented)도 있고, 일부 배운다는 그 자체가 좋아서 또는 근본 원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참여(learning-oriented)한다(Houle 1961).

하지만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라도 모두가 교육·훈련에 참여 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 동기가 실제 교육·훈련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이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 작용한다. 즉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와 관련하여 상황요인, 기관요인, 사회-문화요인, 개인 성향 등이 작용을 한다(이와 관련하여 Emmalou Van Tiberg 1992).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situation)요인으로 참가 비용 문제, 거리

와 시간, 자녀양육 문제 등이 있다. 교육·훈련 참가와 관련하여 비용 보조가 없는 경우 교육·훈련 참여가 어렵고, 교육·훈련 참가하는 데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교육·훈련 참여 비율이 낮으며(Roy Morgan Research 2001), 여성 농업인의 경우 자녀 양육 등이 문제로 인해 교육·훈련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Kilpatrick et al. 1999). 기관(institution)요인으로는 교육·훈련 제공기관의 신뢰성, 교육·훈련 강사의 신뢰성,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전달방식, 교육·훈련 시간의 적절성 등이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교육·훈련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Marsh & Pannell 2000), 믿을 만한 강사에 의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Kilpatrick et al. 1999),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분량이나 통합성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Roy Morgan Research 2001), 프로그램 전달 방식이 매우 한정되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Keen & Stocklmayer 1999), 프로그램 제공 기간이나 시간배정이 교육생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참여도는 낮다. 사회-문화(socio-culture) 요인으로는 교육생의 교육 수준, 나이, 성, 수입 등이 있다. 교육·훈련에 대하여 얼마나 사전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는 교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데 관련 정보와 사전 지식이 많을수록 참여도가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

그림 2-1.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모형



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다(Kilpatrick et al. 1999)². 고령자일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도가 낮으며, 20~30대 농업인일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Roy Morgan Research 2001). 한편 전통적으로 농업에 있어 남여의 역할 구분이 명확한 사회일수록 여성의 교육·훈련 참여가 낮다(Reeve & Black 1998). 마지막으로 농업 수익성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교육·훈련 참여가 낮다(Participative Technology Pty Ltd 2002). 개인성향(disposition) 요인으로는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개인의 학습자로서의 자신감 등이 교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농가 경영에 있어 후원자이면서 공동경영자인 가족 구성원의 교육·훈련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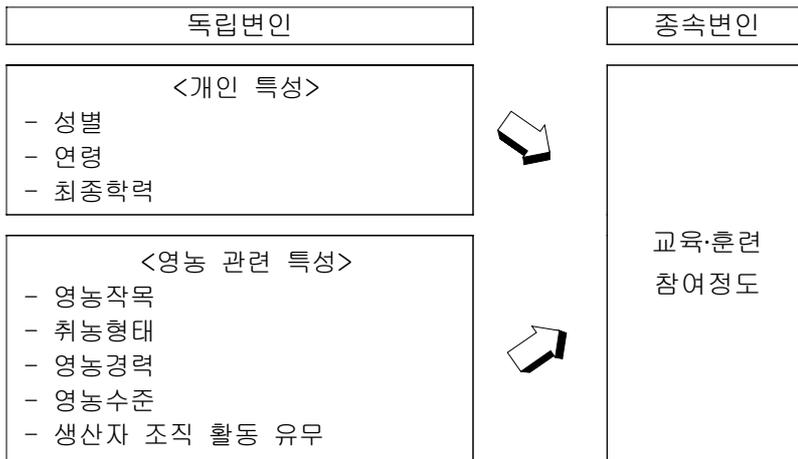
한 태도가 우호적일수록 교육·훈련 참여가 활발하고, 개인 학습자로서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교육·훈련 이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다(Kilpatrick 2000).

한편, 여러 방해요인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농업인 일지라도 비공식적 학습의 과정을 거쳐 보다 형식적인 교육·훈련에 참여를 하게 되는 데, 이와 관련하여 Saleeba (1991)는 다음과 같은 농업인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농업인은 현장에서 지식·기술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 우선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이 접근가능한 정보원을 읽고, 듣는다. 이후 자신의 문제가 좀 더 구체화되면 농업인은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이웃 농가 등에 자문을 구하고, 더 나아가 공공 기관 등에 컨설팅을 받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돈을 내고서라도 교육·훈련에 참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한 이론 고찰을 토대로 연구자는 <그림 2-1>과

2 이는 취농형태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의 차이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Kilpatrick (2000)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농 보다는 승계농이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고, 또한 승계농들은 어린 시절부터 농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대하여 다소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 교육·훈련 참여에 소극적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림 3-1.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요인 구명을 위한 분석 틀



같은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모형을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및 가설

이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과 영농 관련 특성에 따른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참여 실태를 구명하고,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앞서 이론적으로 고찰한 바와 같이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와 관련하여 상황, 기관, 사회-문화, 개인성향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이중 기관요인은 선행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많이 탐색이 되었기 때문에¹ 이 연구에서는 주로 상황,

사회-문화, 개인성향 등과 관련하여 개인 및 영농 특성을 중심으로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와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농업인의 개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등을, 영농 관련 특성으로 취농형태, 영농 경력, 영농수준, 생산자 조직 활동 유무 등을 변인으로 분석하였다<그림 3-1>.

먼저, 이론적으로 고찰된 개인 특성 및 영농 관련 특성에 따른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 차이의 실증적 구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영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개인 특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영

부족과 교육·훈련 시설과 장비 낙후 그리고 담당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별 교육·훈련 목표 불명확, 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의 차별화 부족, 교육·훈련 방법상의 농업인 학습자의 참여 기회 및 실습 기회 부족, 교육·훈련 장소 및 실시 시기와 기간 등의 농업인의 접근성 관련 요인 고려 부족,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제 부족, 교육 이수자에 대한 혜택 및 사후관리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김진모 등 2005; 나승일 등 2005; 마상진 등 2005).

¹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와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를 보면 교육·훈련 기관요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제공기관의 교육·훈련 운영체정

가설을 설정하였다.

<영가설1>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가설2>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가설3>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농업인의 영농특성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영가설을 설정하였다.

<영가설4>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영농작목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가설5>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취농형태(창업농, 승계농)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가설6>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영농 경력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가설7>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영농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가설8>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생산자 조직 활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농업인 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영농작목, 취농 형태, 영농 경력, 영농수준, 생산자 조직 활동 여부 등 여덟 가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교육·훈련 참여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조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농업인이다.

하지만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 농업경영인연합회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3.3. 조사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질문지였다. 질문지는 농업인의 개인 특성 변인, 영농 관련 특성 변인, 교육·훈련 참여 정도 측정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설계에 언급된 변인 외에도 영농 관련 특성과 관련하여 실제 농산물 판매액을 조사하였다. 한편 영농수준의 경우, 경영능력, 작물재배기술, 영농기반, 농산물 판매액에 대하여 다른 농업인과 비교한 자신의 수준을 주관적으로 판단²하도록 하는 문항을 통하여 구분하였다³.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지난 3년간 농업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횟수를 5단계로 범주화⁴하여 조사하였다.

3.4. 자료수집

자료 수집기간, 수집 방법, 회수 현황은 <표 3-1>과 같다. 자료 수집은 2005년 7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대상자들의 연중 행사장소 방문을 통한 조사 및 우편조사를

² 5점 척도(①매우 낮다~⑤매우 높다)
³ 경영능력, 영농기술, 영농규모, 영농판매액 등 4개 분야 점수의 합을 근거로 나누었다. 4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2, 또한 4개 문항의 합(경영수준)과 별도로 파악한 이들의 실제 농산물 판매액의 상관은 역시 0.82로 경영수준 판단의 내적, 외적타당도가 모두 양호하였다.
⁴ 교육·훈련 받은 횟수를 '① 전혀 없음 ② 1-3회 ③ 4-6회 ④ 7-9회 ⑤ 10회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3-1. 자료 수집기간, 수집 방법, 회수현황

	조사 대상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원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수집기간	2005.07.27~08.09.	2005.09.02.	2005.09.26~10.10.
수집방법	각도 농업경영인대회 기간 중 설문지 배부·회수	전국 여성농업인대회 기간 중 설문지 배부·회수	우편조사
회수현황	206부 회수	60부 회수	1000부 발송, 507부 회수

통해 이루어졌고, 총 77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응답자중 여성은 13.2%, 남성은 86.8%였고,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5.5%, 40대가 32.9%, 50대가 19.9%, 60대이상 41.7%였으며, 영농작목별로는 식량작물 농가가 47.6%, 과수 농가가 16.1%, 채소 농가가 21.4%, 특용/화훼 농가가 5.5%, 축산 농가가 9.4%였다.

3.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2.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F 값, 회귀계수 등의 통계치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추리통계에 있어 p값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0.05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4. 연구결과

농업인들의 최근 3년간 참여한 교육·훈련 횟수를 보면, 1~3회가 49.90%로 가장 많았다<그림 4-1>. 10회 이상 교육·훈련에 참석한 농업인은 11.00%로 한 번도 교

그림 4-1.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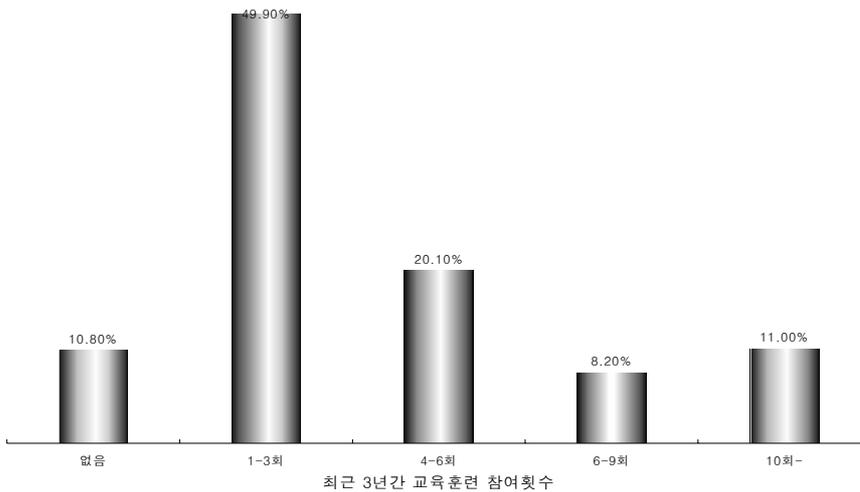


표 4-2. 연령대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실태

연령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횟수					평균	집단 간 차이(F)
	없음	1-3회	4-6회	6-9회	10회-	표준편차	
~39세 이하 (n=41)	4 (9.80)	23 (56.10)	4 (9.80)	5 (12.20)	5 (12.20)	2.61 1.202	0.00**
40~49세 (n=239)	12 (5.00)	95 (39.70)	56 (23.40)	30 (12.60)	46 (19.20)	3.01 1.225	
50~59세 (n=146)	8 (5.50)	74 (50.70)	38 (26.00)	12 (8.20)	14 (9.60)	2.82 1.305	
60세~ (n=304)	56 (18.40)	173 (56.90)	48 (15.80)	13 (4.30)	14 (4.60)	2.2 1.305	
전체 (n=730)	80 (11.00)	365 (50.00)	146 (20.00)	60 (8.20)	79 (10.80)	2.58 1.131	

- 1) 각 셀의 빈도 밑 ()안은 행별 백분율 값
- 2) 평균은 횟수를 '없음=1, 1-3회=2, 4-6회=3, 7-9회=4, 10회 이상=5'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한 값
- 3) **: p < 0.01

육·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농업인(10.80%) 보다 오히려 많았고, 전체 농업인 중에 60% 이상이 1년에 3회 이하의 교육·훈련 기회를 경험하고 있었다.

4.1. 개인 특성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정도 차이

<영가설1>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성 농업인이 남성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가 활발하였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가 여성 농업인은 3.40%에 지나지 않았지만, 남성 농업인은 이보다 많은 11.9%였고, 10회 이상 참여자는 여성이 13.5%인데, 여성농업인은 10.6%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자 중 2/3가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소 적극적인 개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소속이

표 4-1. 성별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실태

성별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횟수					평균	집단 간 차이(F)
	없음	1-3회	4-6회	6-9회	10회-	표준편차	
여 (n=89)	3 (3.40)	35 (39.30)	28 (31.50)	11 (12.40)	12 (13.50)	2.93 1.095	0.02**
남 (n=632)	75 (11.90)	325 (51.40)	117 (18.50)	48 (7.60)	67 (10.60)	2.54 1.13	
전체 (n=721)	78 (10.80)	360 (49.90)	145 (20.10)	59 (8.20)	79 (11.00)	2.59 1.132	

- 1) 각 셀의 빈도 밑 ()안은 행별 백분율 값
- 2) 평균은 횟수를 '없음=1, 1-3회=2, 4-6회=3, 7-9회=4, 10회 이상=5'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한 값
- 3) **: p < 0.01

라는 점에서 전체 여성 농업인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소속 농업인을 제외하고 성별 비교를 한 결과,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다<표 4-1>.

<영가설2>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청장년 농업인이 고령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가 활발하였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 18.40%로 다른 비교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았고, 10회 이상 에서도 4.60%로 다른 비교 연령대에 비해 가장 적었다. 한편 40대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참여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가 5.0%로 가장 적었고, 10회 이상 경험자는 19.20%보다 가장 많았다. 교육·훈련 참여 횟수를 5단계 점수로 환

산하여 평균을 낸 점수에서도 40대가 3.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50대, 30대 이하, 60대 이상 순이었고,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4-2>.

<영가설3>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참여가 활발하였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를 보면 대졸 이상이 9.58%로 가장 적은 반면, 중졸이하는 13.60%로 가장 많았다. 10회 이상 교육·훈련 참여 사례도 대졸 이상이 20.55%로 가장 많은 반면, 중졸이하는 4.40%로 가장 적었다. 교육·훈련 참여 횟수를 5단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을 낸 점수에서도 대졸 이상이 2.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고졸, 중졸이하 순이었고,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4-3>.

표 4-3. 최종학력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실태

최종학력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횟수					평균	집단 간 차이(F)
	없음	1-3회	4-6회	6-9회	10회-	표준편차	
중졸이하 (n=228)	31	123	46	18	10	2.36	0.01**
	(13.60)	(53.90)	(20.20)	(7.90)	(4.40)	0.962	
고졸 (n=394)	39	192	77	35	51	2.66	
	(9.90)	(48.70)	(19.50)	(8.90)	(12.90)	1.174	
대졸 이상 (n=73)	7	33	14	4	15	2.82	
	(9.58)	(45.20)	(19.17)	(5.48)	(20.55)	1.257	
전체 (n=695)	77	348	137	57	76	2.58	
	(11.10)	(50.10)	(19.70)	(8.20)	(10.90)	1.135	

1) 각 셀의 빈도 밑 ()안은 행별 백분율 값
 2) 평균은 횟수를 '없음=1, 1-3회=2, 4-6회=3, 7-9회=4, 10회이상=5'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한 값
 3) **: p < 0.01

4.2. 영농 관련 특성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정도 차이

<영가설4>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영농작목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영농작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식량작물이 주 영농작목인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가 가장 낮았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를 보면 식량작물 농업인의 경우 14.5%로 가장 많았고, 10회 이상 경험자도 8.40%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축산, 과수 등을 주 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도가 가장 높았다. 교육·훈련 참여 횟수를 5단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을 낸 점수를 보면, 축산 농업인은 2.9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과수

로 2.85였으며, 특용이나 화훼, 그리고 채소 농업인이 그 다음이었으며, 식량작물 농업인은 2.4로 가장 낮았다.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4-4>.

<영가설5>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취농형태(창업농, 승계농)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취농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창업 농업인이 승계 농업인 보다 교육·훈련 참여 정도가 높았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를 보면 승계 농업인의 경우 11.50%로 창업 농업인보다 많았고, 10회 이상 경험자도 10.40%로 창업 농업인보다 적었다. 교육·훈련 참여 횟수를 5단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을 낸 점수를 보면, 창업 농업인은 2.84로 승계 농업인(2.55)보다

표 4-4. 영농작목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실태

영농작목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횟수					평균	집단 간 차이(F)
	없음	1-3회	4-6회	6-9회	10회-	표준편차	
식량작물 (n=297)	43 (14.50)	159 (53.50)	53 (17.80)	17 (5.70)	25 (8.40)	2.4 1.074	0.01**
과수 (n=101)	7 (6.90)	42 (41.60)	27 (26.70)	9 (8.90)	16 (15.80)	2.85 1.186	
채소 (n=134)	11 (8.20)	71 (53.00)	25 (18.70)	15 (11.20)	12 (9.00)	2.6 1.084	
특용, 화훼 (n=34)	1 (2.90)	16 (47.10)	11 (32.40)	3 (8.80)	3 (8.80)	2.74 0.994	
축산 (n=57)	4 (7.00)	23 (40.40)	14 (24.60)	5 (8.80)	11 (19.30)	2.93 1.252	
전체 (n=623)	66 (10.60)	311 (49.90)	130 (20.90)	49 (7.90)	67 (10.80)	2.58 1.122	

1) 각 셀의 빈도 밑 ()안은 행별 백분율 값
 2) 평균은 횟수를 '없음=1, 1-3회=2, 4-6회=3, 7-9회=4, 10회 이상=5'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한 값.
 3) **: p < 0.01

표 4-5. 취농형태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실태

취농형태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횟수					평균	집단 간 차이(F)
	없음	1-3회	4-6회	6-9회	10회-	표준편차	
승계농 (n=599)	69 (11.50)	304 (50.80)	114 (19.00)	50 (8.30)	62 (10.40)	2.55 1.126	0.016*
창업농 (n=111)	10 (9.00)	43 (38.70)	30 (27.00)	11 (9.90)	17 (15.30)	2.84 1.203	
전체 (n=710)	79 (11.10)	347 (48.90)	144 (20.30)	61 (8.60)	79 (11.10)	2.6 1.142	

- 1) 각 셀의 빈도 밑 ()안은 행별 백분율 값
- 2) 평균은 횟수를 '없음=1, 1-3회=2, 4-6회=3, 7-9회=4, 10회 이상=5'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한 값
- 3) *: p < 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4-5>.

<영가설6>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영농 경력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영농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영농 경력이 적을수록 교육·훈련 참여 정도가 높았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를 보면 10년 이하 영농 경력자는 3.40%로 가장 적은 데 비해 31년 이상자는

19.90%로 가장 많았고, 10회 이상 경험자도 10년 이하 경력자는 19.30%로 가장 많은 데 비해 31년 이상자는 5.50%로 가장 적었다. 교육·훈련 참여 횟수를 5단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을 낸 점수를 보면, 10년 이하 경력자는 3.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1~20년 경력자, 21~30년 경력자, 31년 이상 경력자 순이었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4-6>.

표 4-6. 영농 경력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실태

영농경력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횟수					평균	집단 간 차이(F)
	없음	1-3회	4-6회	6-9회	10회-	표준편차	
~10년 (n=145)	5 (3.40)	57 (39.30)	31 (21.40)	24 (16.60)	28 (19.30)	3.09 1.213	0.00**
11~20년 (n=207)	14 (6.80)	95 (45.90)	52 (25.10)	18 (8.70)	28 (13.50)	2.76 1.144	
21~30년 (n=157)	19 (12.10)	92 (58.60)	25 (15.90)	11 (7.00)	10 (6.40)	2.37 1.002	
31년~ (n=201)	40 (19.90)	109 (54.20)	36 (17.90)	5 (2.50)	11 (5.50)	2.19 0.968	
전체 (n=710)	78 (11.00)	353 (49.70)	144 (20.30)	58 (8.20)	77 (10.80)	2.58 1.131	

- 1) 각 셀의 빈도 밑 ()안은 행별 백분율 값
- 2) 평균은 횟수를 '없음=1, 1-3회=2, 4-6회=3, 7-9회=4, 10회이상=5'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한 값
- 3) **: p < 0.01

표 4-7. 영농수준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실태

영농수준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횟수					평균	집단 간 차이(F)
	없음	1-3회	4-6회	6-9회	10회-	표준편차	
하 (n=140)	29 (20.70)	87 (62.10)	13 (9.30)	5 (3.60)	6 (4.30)	2.09 0.909	0.00**
중 (n=303)	37 (12.20)	138 (45.50)	78 (25.70)	25 (8.30)	25 (8.30)	2.55 1.075	
상 (n=212)	7 (3.30)	98 (46.20)	43 (20.30)	24 (11.30)	40 (18.90)	2.96 1.212	
전체 (n=655)	73 (11.10)	323 (49.30)	134 (20.50)	54 (8.20)	71 (10.80)	2.58 1.133	

- 1) 각 셀의 빈도 밑 ()안은 행별 백분율 값
- 2) 평균은 횟수를 '없음=1, 1-3회=2, 4-6회=3, 7-9회=4, 10회이상=5'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한 값
- 3) **: p < 0.01

<영가설7>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영농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영농수준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영농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참여 정도가 높았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를 보면 영농수준이 '하'인 농업인은 20.70%로 가장 많은 데 비해, '상'인 농업인은 3.30%로 가장 적었다. 10회 이상 경험자도 '상'인 농업인은 18.90%로 가장 많은 데 비해, '하'인 농업인은 4.30%로 가장 적었다. 교육·훈련 참여 횟수를 5단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을 낸 점수를 보면, 영농수준이 '상'인 농업인은 2.9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인 농업인이었고, '하'인 농업인은 2.09로 가장 낮았다.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4-7>.

<영가설8>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생산자 조직 활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정도는 생산자 조직 활동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생산자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없는 사례를 보면 생산자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은 5.0%인데, 생산자 조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은 21.0%였다. 10회 이상 경험자는 생산자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은 14.40%인데, 생산자 조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은 4.40%였다. 교육·훈련 참여 횟수를 5단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을 낸 점수를 보면, 생산자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은 2.81이고, 생산자 조직 활동을 하고

⁵ 경영능력, 영농기술, 영농규모, 영농판매액 등 4개 분야 점수의 합을 근거로 영농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었다. 총점(범위: 4-20, 이론평균: 12)이 15점 이상이면 '상', 10-14점이면 '중', 9점 이하이면 '하'로 구분하였다.

표 4-8. 생산자 조직 활동 여부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실태

생산자 조직활동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횟수					평균	집단 간 차이(F)
	없음	1-3회	4-6회	6-9회	10회-	표준편차	
하지 않음 (n=252)	53 (21.00)	134 (53.20)	40 (15.90)	14 (5.60)	11 (4.40)	2.19 0.976	0.00**
하고 있음 (n=464)	23 (5.00)	221 (47.60)	106 (22.80)	47 (10.10)	67 (14.40)	2.81 1.15	
전체 (n=716)	76 (10.60)	355 (49.60)	146 (20.40)	61 (8.50)	78 (10.90)	2.59 1.131	

1) 각 셀의 빈도 밑 ()안은 행별 백분율 값
 2) 평균은 횟수를 '없음=1, 1-3회=2, 4-6회=3, 7-9회=4, 10회이상=5'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한 값
 3) **: p < 0.01

있지 않은 농업인은 2.19로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4-8>.

4.3.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 관련 변인

농업인의 개인 특성 및 영농 관련 특성과 교육·훈련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표 4-9>와 같다. 이 연구에서 영가설과 함께 다루어진 농업인 개인 특성 및 영농 관련 특성은 앞선 통계 검증(F 검증)을 통

해서도 밝혀졌듯이, 상관분석을 통해서도 모두 교육·훈련 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영농수준, 생산자 조직 활동, 학력, 영농작목, 취농형태 등의 순으로 양의 상관이 영농 경력, 연령, 성별 등과는 음의 상관이 있었다. 한편 영농 경력과 연령이 상관계수가 0.865로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교육·훈련 참여도를 설명함에 있어 두 변인간의 다중공선성

표 4-9. 농업인 개인 특성 및 영농 관련 특성과 교육·훈련 참여 횟수의 상관관계

	연령	학력	영농작목	취농형태	영농경력	영농수준	조직활동	교육훈련 참여 횟수
성별 ^a	0.346**	0.057	-0.075*	-0.051	0.377**	0.009	-0.074*	-0.115**
연령		-0.355**	-0.146**	-0.073*	0.865**	-0.186**	-0.236**	-0.278**
학력			0.137**	0.045	-0.430**	0.227**	0.151**	0.139**
영농작목 ^b				0.064	-0.164**	0.075	0.183**	0.132**
취농형태 ^c					-0.117**	-0.005	0.054	0.091*
영농경력						-0.152**	-0.223**	-0.297**
영농수준							0.339**	0.288**
조직활동 ^d								0.264**

a: 여=0, 남=1
 b: 식량작물=0, 식량작물 이외 영농작목=1
 c: 승계농=0, 창업농=1
 d: 생산자 조직 활동 하고 있지 않음=0, 생산자 조직 활동 하고 있음=1
 *: p<0.05, **: p< 0.01

(multicollinearity)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남성 농업인들의 연령, 영농 경력이 더 높고, 식량작물 이외 작물에 많이 종사한다는 점, 영농 경력이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다는 점, 학력이 높을수록 영농수준과 생산자 조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점, 영농작목이 식량작물 이외의 것일수록 생산자 조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점, 창업농일수록 영농 경력이 적다는 점, 영농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자 조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점 등은 각 변인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 정도를 설명함에 있어 유념해 둘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농업인 개인 특성과 영농 관련 특성 변인 중에 교육·훈련 참여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을 구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업인의 연령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농업인의 교육 참여 정도는 개인 특성 및 영농 관련 특성 변인 중에 연령, 영농수준, 생산자 조직 활동, 영농작목, 취농형태 등 다섯 가지 변인과 0.424의 다중상관을 보였고, 이들 변인에 의해 전체 변량의 18%가 설명되고 있었다. 연령 외에 영농수준, 생산자 조직 활동, 영

농작목, 취농형태 순으로 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한편 성별, 최종학력, 영농 경력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육·훈련 참여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였다<표 4-10>.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참여가 일부 농업인에게 다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번도 교육·훈련에 참석한 경험이 없는 농업인보다 지난 3년간 10회 이상 참석한 경험이 있는 농업인이 오히려 많았고 농업인의 60%가 1년에 1회 이하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부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 기회가 집중되고, 많은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또한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한 중복, 과잉 투자라는 일각의 의견이 다소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 준다.

둘째, 남성 농업인이 여성 농업인보다 교

표 4-10.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인	β	t	R ²
연령	-0.226	-5.698**	0.095
영농수준	0.202	4.958**	0.151
생산자 조직활동	0.102	2.423**	0.164
영농작목	0.091	2.323**	0.173
취농형태	0.084	2.198**	0.180

R=0.424, F(5,569)=24.906(p=0.000)

제외된 변인: 성별, 최종학력, 영농경력

** : p<0.01

육·훈련 참여도가 높지는 않았다. 이론 고찰을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남성 농업인이 여성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구 결과 여성 농업인이 남성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 정도가 오히려 높았다. 이는 특정 여성 농업인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조사의 표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결과에서도 성별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주목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 중에 남성 농업인의 나이가 여성 농업인 더욱 많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도 비교는 성별 연령대를 좀 더 고르게 표집한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신중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장년 농업인이 고령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다. 우리사회의 고령층은 청년·장년층만큼의 학교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 교육기회의 차이는 학습능력의 차이로 이어져 일반적으로 고령 농업인들은 청장년 농업인보다 상대적으로 학습자로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대다수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고령 농업인에 학습자 특성을 특화하여 개설되고 있지 못한 현실 상황도 그 원인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교육 수준이 높은 농업인이 교육 수준이 낮은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다. 이는 고령 농업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장년 농업인일지라도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본인이 다른 학습자와 함께 끝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능동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영농작목이 식량작물인 농업인보다 그 외 영농작목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다. 이는 일부 식량작물 농업인과 그 외 농업인간의 학력, 연령 등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축산, 과수, 특용 및 화훼, 채소 등은 수도작, 전작 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영농작목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느끼느냐에 따라 교육·훈련 참여도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창업농이 승계농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다. 이론적으로 고찰되었듯이 승계농의 경우 이미 어린시절부터 보아온 영농 활동 대부분이 본인에게는 익숙하기에 다소 이론적으로 진행되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대하여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거부터 어느 정도 영농기반이 완비된 상황에서 그동안 잘 해 왔기에 새로운 영농기법 도입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일곱째, 영농 경력이 적은 농업인이 영농 경력이 많은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

도가 높았다. 이는 영농 경력이 많은 농업인이 대부분 학습자로서의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 농업인이고, 영농 경력이 많은 농업인일수록 앞서 영농 상의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십 년간 큰 위기 없이 해오던 영농 활동에 새로운 변화를 젊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억지로 시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여덟째, 영농수준이 높은 농업인이 영농수준이 낮은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다. 이론적으로 고찰되었듯이 농업인이 처음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먼저 스스로 자문하고 독학을 하다가, 문제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주변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고 그 과정 후에 교육·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영농수준이 높은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학습자로서의 자신감이 높은 교육 수준이 높은 상관성으로 이 결과가 일부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농업인이 자신의 영농규모를 확장하고 농산물 판매액을 늘려감에 따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더 많은 경영정보와 영농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좀 더 정밀한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영농수준이 높은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가 높다는 것은 역으로 교육·훈련이 영농수준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생산자 조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생산자 조직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보다 교육·훈련 참여도가 높았다. 이는 영농수준이 높은 농가일수록 생산자 조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상관성을 통해서도 일부 설명될 수 있지만, 자신이 소속된 생산자 조직을 통해 공동구입,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의 활동을 거치면서 비공식적인 상호자문의 과정과 학습을 겪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앞서 농업인의 학습 과정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좀 더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열 번째,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은 연령이었고, 영농수준, 생산자 조직 활동, 영농작목, 취농형태 등도 이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 즉 상대적으로 젊은 농업인일수록, 영농수준이 높은 농업인일수록, 생산자 조직 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일수록, 식량작물 이외의 작목에 종사하는 농업인일수록, 창업 농업인일수록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고령 농업인, 영농수준이 낮은 농업인, 생산자 조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 식량작물 위주의 농업인, 승계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교육·훈련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첫 번째 결론의 연장선상에서 농업인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주 수혜자와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보여 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먼저, 농업인이 교육·훈련을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인의 교

육·훈련 참여와 관련한 요인을 하여 밝히기는 했지만 이론적 고찰과 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 변량분석 등 양적연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에 농업인들의 심리적, 사회적 구체적인 기제를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각 변인간의 인과 관계의 설명력을 보완한다는 질적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농업인 교육·훈련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업인의 교육·훈련 등을 통해 획득된 지식이 얼마나 영농현장에 실천되고 있는지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가 농업의 생산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많은 지식이 교육·훈련 현장에서 더 이상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된다. 농업인이 획득한 지식이 영농현장에서의 실천, 그리고 영농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지식의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를 밝히는 연구는 궁극적으로 농업인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추후에 심도 있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훈련 이외의 각종 농업인들의 학습활동 전반에 어떠한 방해/촉진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학습은 공식적인 교육·훈련 이외에도 각종 공식적, 비공식적 자문활동, 학습조직활동, 개인학습활동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식의 구성적(constructive)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형식화된 지식보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 채득할 수 있는 암묵지가 다양한 형태로 영농현장에서 학습되고 있기에 교육·훈련이라는 한정적 정보원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진모 등. 2005.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나승일, 정철영, 김진모, 안강현. 2005.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 농림부.

마상진, 김영생. 2005.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mmalou Van Tilburg, N. 1992. "Why adults participate." *Journal of extension*. 30(3) <<http://www.joe.org/joe/1992fall/a2.html>>

Houle, C. 1961. *The Inquiring Min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Keen, M and Stockmayer, S. 1999. "Science Communications: The evolving role of rural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s." *Australian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6(4):196-206.

Kilpatrick, S. 2000. *Education and training, impacts on farm management practice*. Launceston: Centre for Research and Learning, University of Tasmania.

Kilpatrick, S., Johns, S., Murray-Prior, R., & Hart, D. 1999. *Managing Farming: How Farmers Learn*. Rural Indust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Marsh, S.P. and Pannell, D.J. (2000). *Agricultural Extension: A decade of change*. RIRDC <<http://www.rirdc.gov.au/pub/shortreports/sr66.html>>

Participative Technology Pty Ltd. 2002. *Conditions Influencing On-Farm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Outcom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Australia.

Roy Morgan Research. 2001. *2000 survey of FarmBis training participants*. Sydney: Roy Morgan Research.

Saleeba, J. 1991. "The Role of adult education in developing the human resources for agricultural industries". *Proceedings of the 1991 National Conference and Workshop 'Developing the Human Resources for Agricultural Industries'*, AIAS Occasional Publication (60): 7-10.

■ 원고 접수일 : 2006년 7월 13일
원고 심사일 : 2006년 7월 21일
심사 완료일 : 2006년 9월 25일